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인터뷰

"경제민주화로 양극화·갈등 극복해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를 경제사회 분야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갈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고 조화롭게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당장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절호의 기회가 온 만큼 대선 플랫폼 등을 통해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 적합한 지도자를 찾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민주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사진을 잘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민주화가 차기 대선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차기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제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양극화와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다. 양극화와 갈등은 우리나라 경제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분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이를 조화롭게 극복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의 분열된 경제사회 구조를 어떻게 화합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 갈지, 출구를 찾는 것이다.

예전처럼 무작정 단일화 아닌 2018년 이후 대한민국 이끌 후보 '제3지대'서 논의 필요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격차 없는 공정성장'을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안 전 대표가 말한 시대정신과 경제민주화는 같은 맥락인가.

▲안 전 대표가 말한 '격차 없는 공정성장'은 허구다. 공정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경제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과 비전 제시가 명확해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론' '야권 정계개편' '중간 지대 플랫폼' 등 대선 새 판 짜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김종인 전 대표의 '대선 플랫폼' 설계 이야기도 있다. 김 전 대표가 생각하는 '대선 플랫폼' 구상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2018년 이후 이끌어 갈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를 제3지대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옛날 방식으로 무작정 야권후보 단일화, 여권 후보 단일화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 제시 등을 논의해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찾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 경제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향 제시를 명확히 해야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사이에서 한반도의 외교 안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일본 동남아 안보 변화 등을 어떻게 보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대선 플랫폼은 독자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최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고, 자리 욕심만 있다'고 대권 후보들에게 쓴 소리를 했다. 어떤 뜻인가.

▲현재 한국 경제가 문제다.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국제경제 상황에 떨어져 있고, 우리 경제는 굳어있는 돌과 같은 상태다. 또한, 세계 경제 흐름에서 봤듯이 유럽의 '브렉시트'가 동북아로 넘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했듯이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외교 안보를 운영해야하고, 우리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문(親文)의 압도적 우세가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른바 '이대문'(이대로 가면 더민주 대권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로 간다는 뜻)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선 경선 시기 논쟁도 있다.

▲더민주의 대권 후보 룰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권 후보는 추후 논의될 사항이다. 경선 시기는 대권을 뛰는 후보들이 서로 의논해서 가장 국민들에게 잘 내보일 수 있는 경선레이스를 하면된다. 그런 걱정은 시기상조다.

-경선 시기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간 당내 갈등 우려도 있다.

▲더민주는 그동안 갈등 속에서 지냈다. 갈등 끝에 지난 4·13 총선에서 승리해 살아난 정당이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복귀를 통해 제3지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다.

▲손 전 대표가 제3지대를 만들어서 대선까지 항구적으로 가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손 전 대표의 제3지대가 정계개편의 영향을 가져올 수는 있다. 또한, 손 전 대표로서는 이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소통이 있는지.

▲남 지사는 평소 잘 알고 있는 사이다. 시대 감각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정치에서는 협치가 우선인데, 경기도에서 여야간 협치를 이뤄낸 선례도 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있는 인물로 생각한다.

-최근 '경제포럼'을 출범시킨다는 보도가 있었다.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은 허구 '경제포럼' 출범 정치 목적 없어 더민주 비전 내놔야 호남민심 회복

'경제포럼'이 대권 행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경제포럼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다. 혼자서 하기 뭐해서 전문가들과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듣고 토론도 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해법이 나올까 해서 시도를 한 것이다. 정치적 목적은 절대 아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더민주가 호남 민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호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정치적으로 성숙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13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사실상 큰 가르침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민주당이 이를 잘 인식하고 대처해야 호남에서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청사진을 잘 제시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집권 비전 등 청사진을 잘 제시해야 하고, 이를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때 호남 민심도 되돌아 올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는 야권이 호남에서 3분2 이상 득표해야 승산이 있다. 그러면 호남이 차기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현안 줄 소송 … 행정력 낭비 우려

U대회 선수촌 사용료 등 민선 6기 들어 314건

광주지역 주요 현안들이 줄 소송에 휘말리면서 행정력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광주시가 김동찬(더민주·북구 5)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1~2013년 모두 238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이어 민선 6기가 들어선 2014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는 314건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소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주요 현안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32건, 민사소송 34건 등 66건이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계류중인 대표적인 소송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료 지급,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어등산리조트 개발 등이다.

우선, 북구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은 투자업체가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추진됐지만, 최근 법원 결정으로 다시 멈춰 섰다. 애초 투자공모에서 1순위 협상대상이었다가 지위를 박탈당한 녹색친환경에너지 측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광주고법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는 녹색친환경에너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LG CNS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배제하고 2순위였던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달리 임시 처분 성격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는 당분간 1·2순위, 어느 쪽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개최한 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료와 관련한 소송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선수촌을 제공한 화정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467억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시는 34억원을 제시해 차이가 크다.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주변 주민들은 광주시를 상대로 소음과 빛 공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동찬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 사업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릴 수는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충분히 예견된 부분에 대한 점검과 예측을 소홀히 하거나 업무상 과실, 잘못된 시책추진으로 패소해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소송이 아니라 소통으로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개원 1주년 행사 다채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개원 1주년을 맞아 정책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7일 "오는 28일 오후 2시 연구원 상생마루에서 '광주전남의 신성장동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통합 개원 1주년·건원 25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션별 주제발표에서 제기된 내용을 제19대 대선 대비 광주·전남지역 공약 발굴로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민화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광주전남의 대응'을 주제로 미래 혁신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적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통합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연구원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의 직원 간 화합의 장을 도모했으며, 문순태 이사장이 '인문학 시대의 감성'을 주제로 전 직원 대상 특강을 펼쳤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남신보 이사장 최종 후보 최형천씨 선정

전남도가 전남신용보증재단 제6대 이사장 후보로 담양 출신 최형천(62) 전 제일화재 전무를 선정했다.

전남신보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보증, 서민 금융복지 증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최 후보자는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8년간 제일화재에 근무하면서 전무이사를 역임했고, 지역 산학 간 협력 네트워크인 (사)산학협동연구원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이 전남신보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이달 하순 최종 선정된 최 후보자에 대한 전남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